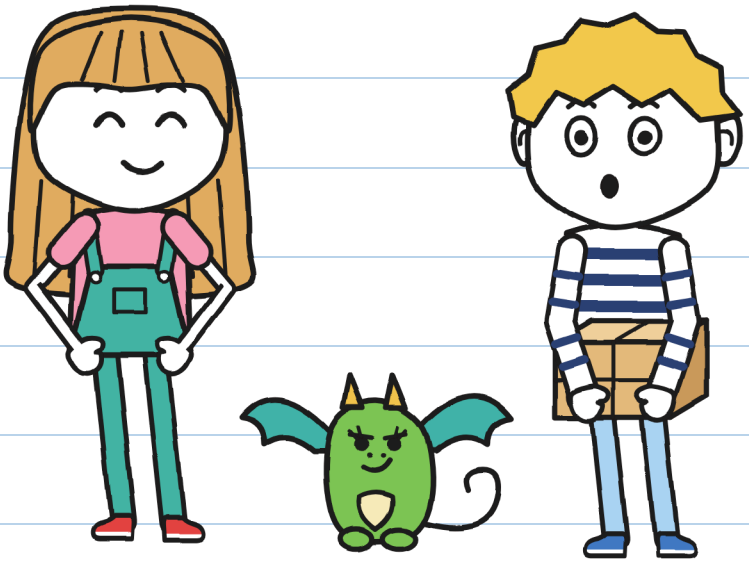
불가능 배달 · 1

이 택배는 문다

Lui Eriksson



(구매의)

사이즈 XS

처음 읽기 · 5+

불가능 배달 · 1

이 택배는 문다

글과 그림 : Lui Eriksson

사이즈 XS · 처음 읽기 · 5+

한국어판: LinguAula

초판: 202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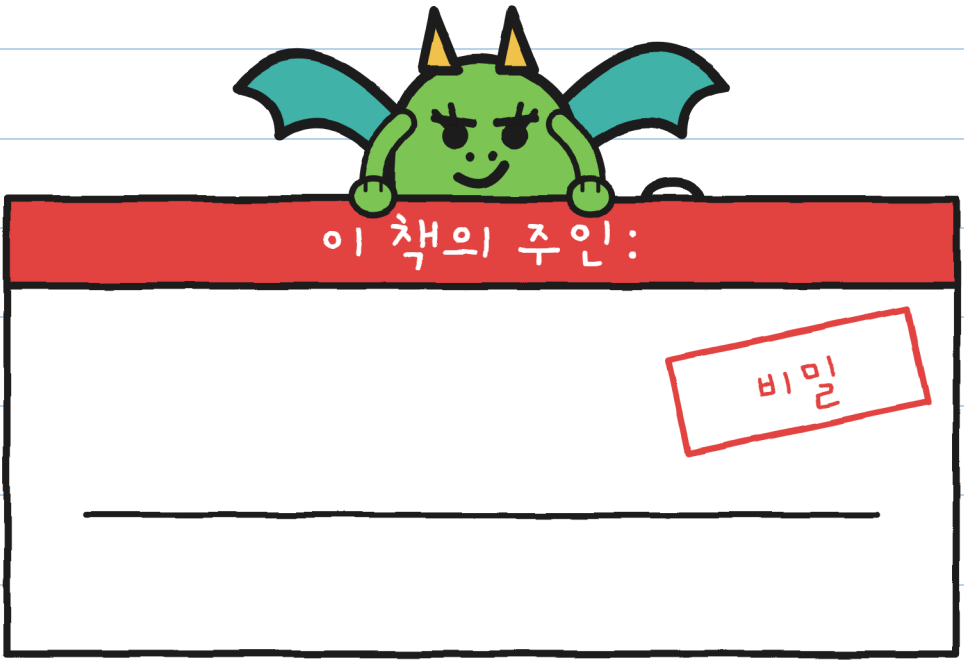
© 2026 Lui Eriksson · info@linguaula.com

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.

LinguAula
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

다친 택배는 없다. 거의. —J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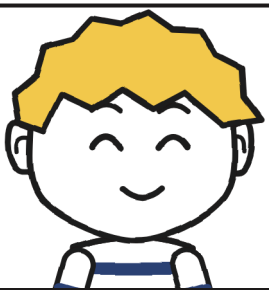
다른 누구 것도 아니야. —J.

이걸 주웠다면, 해 뜨기 전에 돌려줘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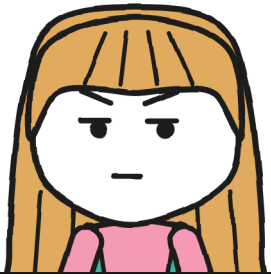
부스러기는 이야기 속에 살아서 무는 거야.

진짜 동물을 만나면 76쪽을 봐. —J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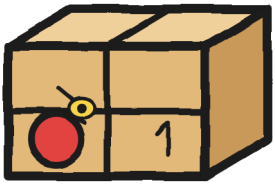
등장인물



구니. 새로 온 아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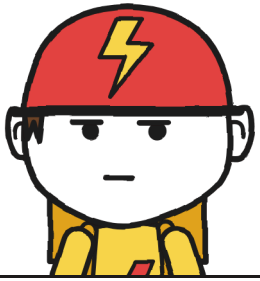
훌리타. 초록색으로 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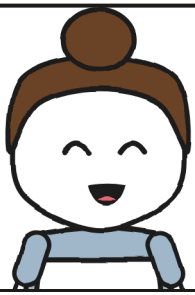
1번 택배.



마라. 주인.



토뇨. 번개배송.



엘리아. 빵집 주인.

배달 공책
주인: 구니

비밀: 내가 먼저 읽어. -J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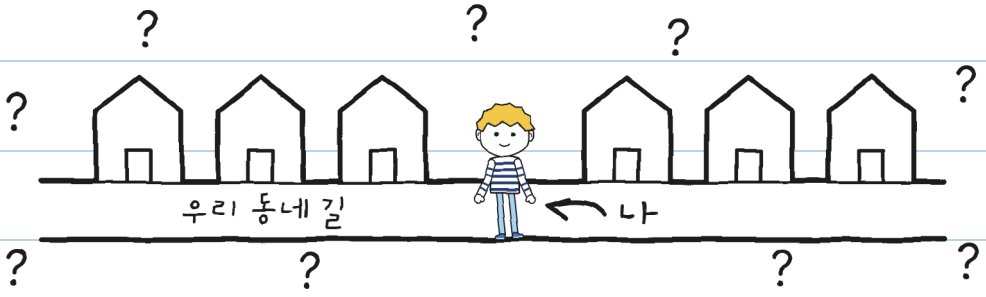
이 공책은 이삿짐 상자에서 나왔다.

상자에는 '부엌'이라고 쓰여 있었다.

제1장

안 되는 택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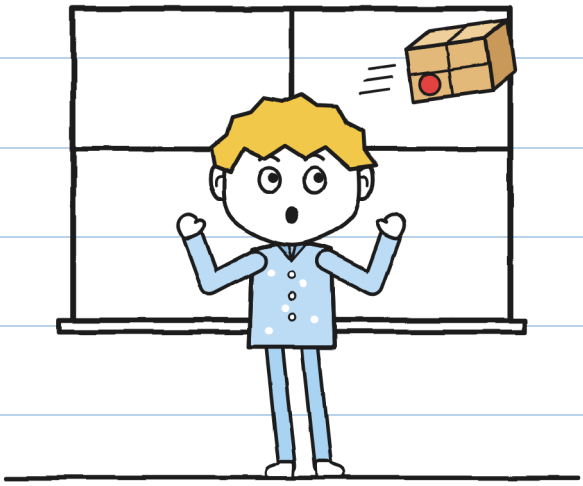
이 동네에 온 지 4일이 됐다.



친구를 사귀는 내 계획:

1. 인사하기.
2. 재미있는 말하기.
3. ???

무언가가 내 창문 앞을 날아서 지나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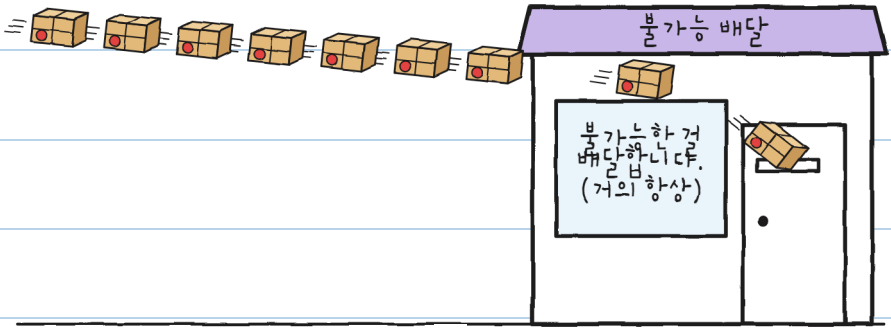


택배였다.

그다음에 또 하나, 또 하나. 아홉

개가 오리처럼 줄지어 날아갔다.

가게 우편함으로 쏙 들어갔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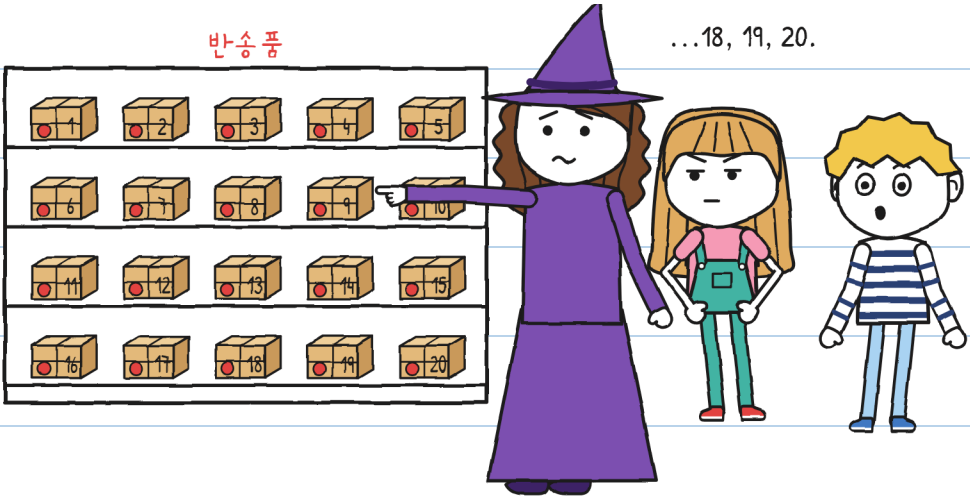
2번: 날아다니는 택배!

재미없어. 자주 있는 일이야.

이 메모는 훌리타가 썼다.

초록색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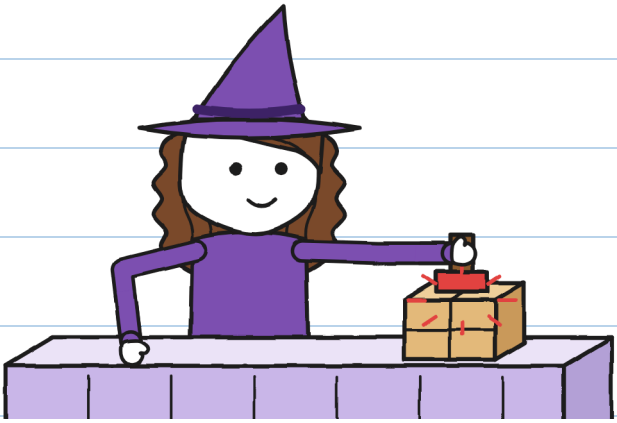
나는 스웨터를 입고 길을 건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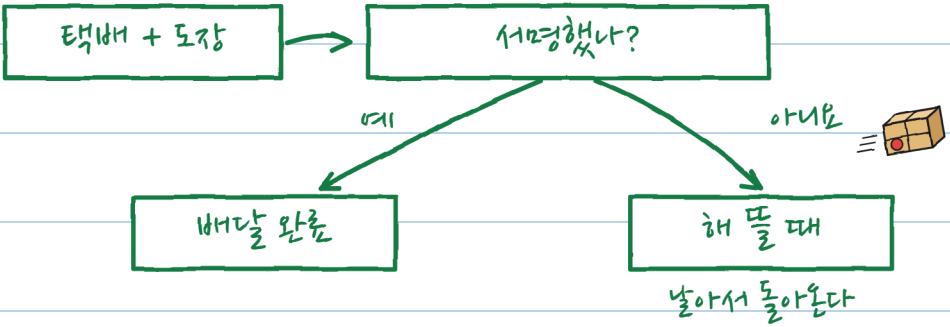


"전부 돌아왔네." 마녀가 말했다. "또."

마녀의 이름은 마라다.

반짝이는 도장이 하나 있다.





(안 지워짐)

사라지는 택배는 없어.

선반에는 돌아온 택배가 스무 개 있다.

받는 곳: ...
보내는 사람: **R.**

"R.이 누구예요?" 내가 물었다.

"글씨 못 쓰는 사람이야."

마라아줌마가 말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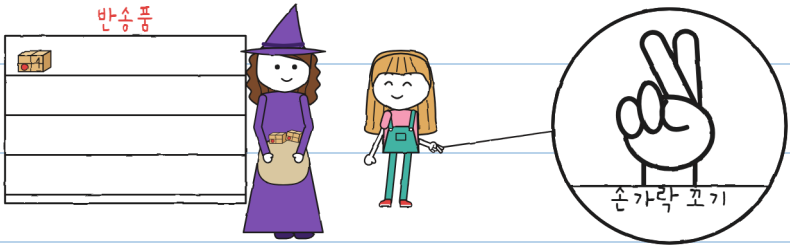
마라아줌마는 택배 열아홉

개를 자루에 넣었다.

"그건 안돼." 마라아줌마가

말했다. "선반에 손대지 마."

"당연하죠." 훌리타가 말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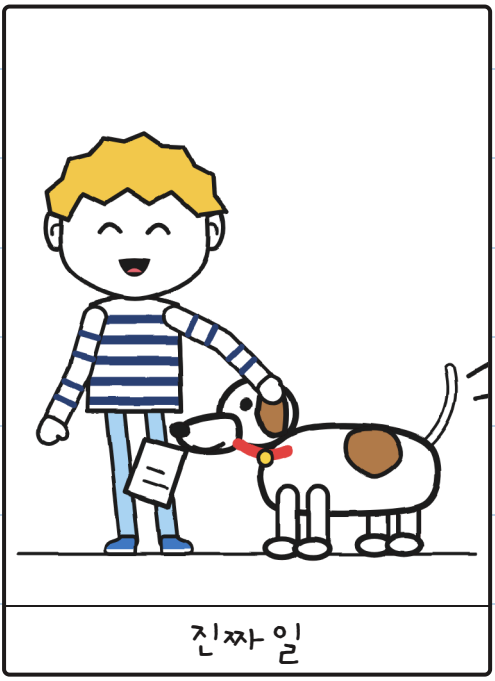
훌리타가 나를 쳐다보았다.

"너 배달할 줄 알아?"

"응. 다른 동네에서는 배달 전문가였어."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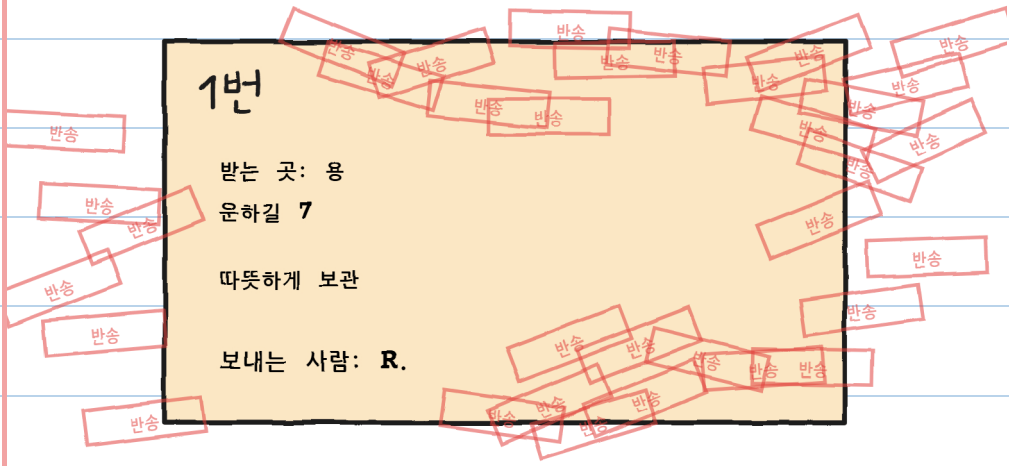
내가 한 말



진짜 일

강아지 전문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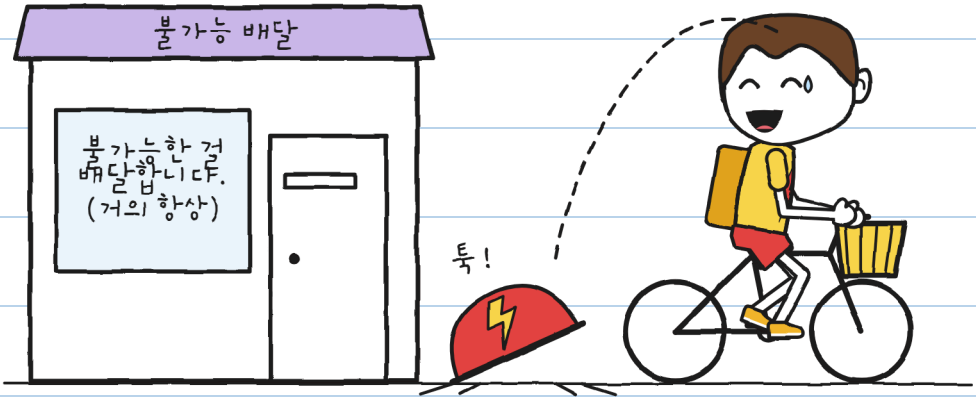
훌리타가 마지막 택배를 꺼냈다. 1번 택배였다. 훌리타의 손이 떨렸다.



"해 뜨기 전에 배달하자." 훌리타가 말했다.

좋은 계획 같았다.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다.

따르릉! 자전거를 탄 남자아이가
나타났다. 헬멧을 쓰고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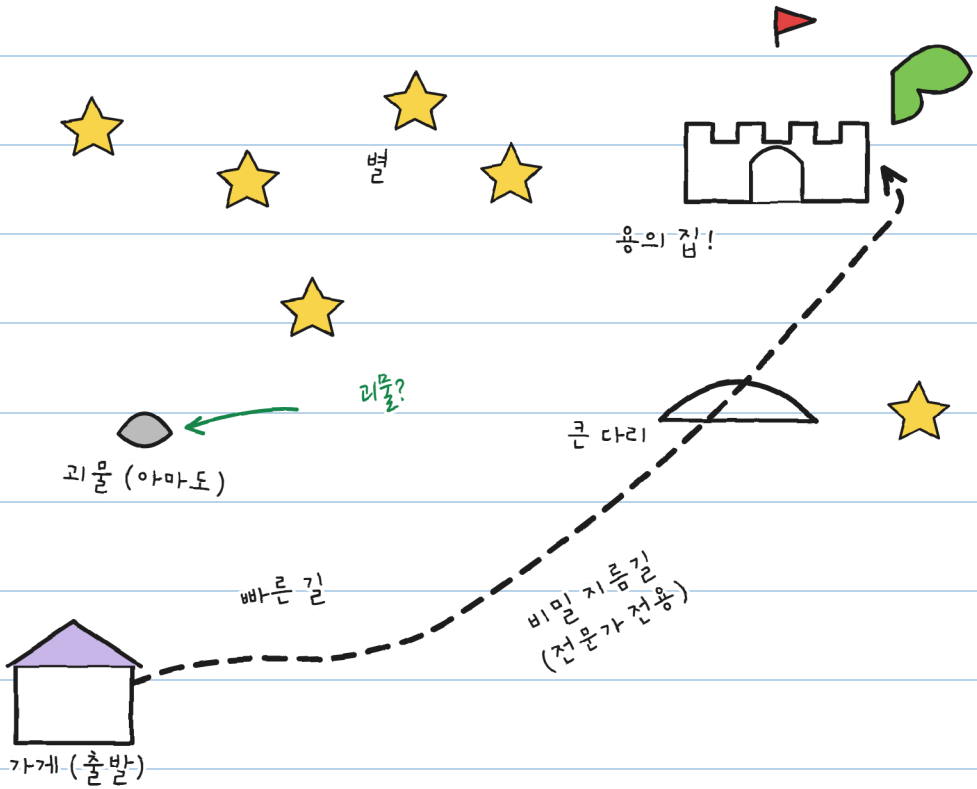
"불가능 배달? 정말 불가능이네!"
남자아이가 말했다.

토뇨. 지루한 걸 배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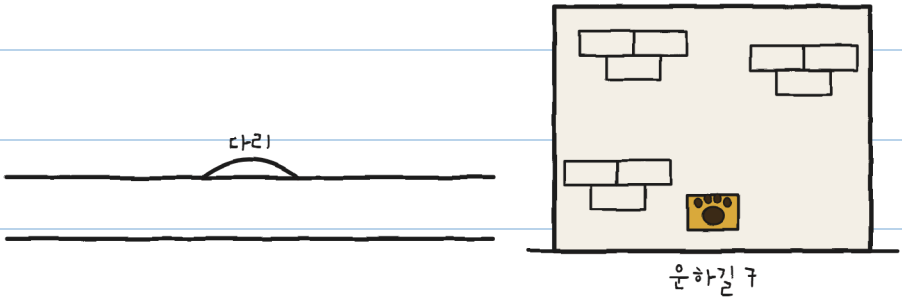
"오늘은 이걸 배달할 거야." 훌리타가
말했다. 토뇨는 웃다가 헬멧이 떨어졌다.

배달 약도를 그렸다.

전문가는 약도를 그린다.



별은 없다.



집이 아니었다. 벽이었다.

매끈한 벽이었다. 문도 창문도

없었다. 놋쇠판 하나만 있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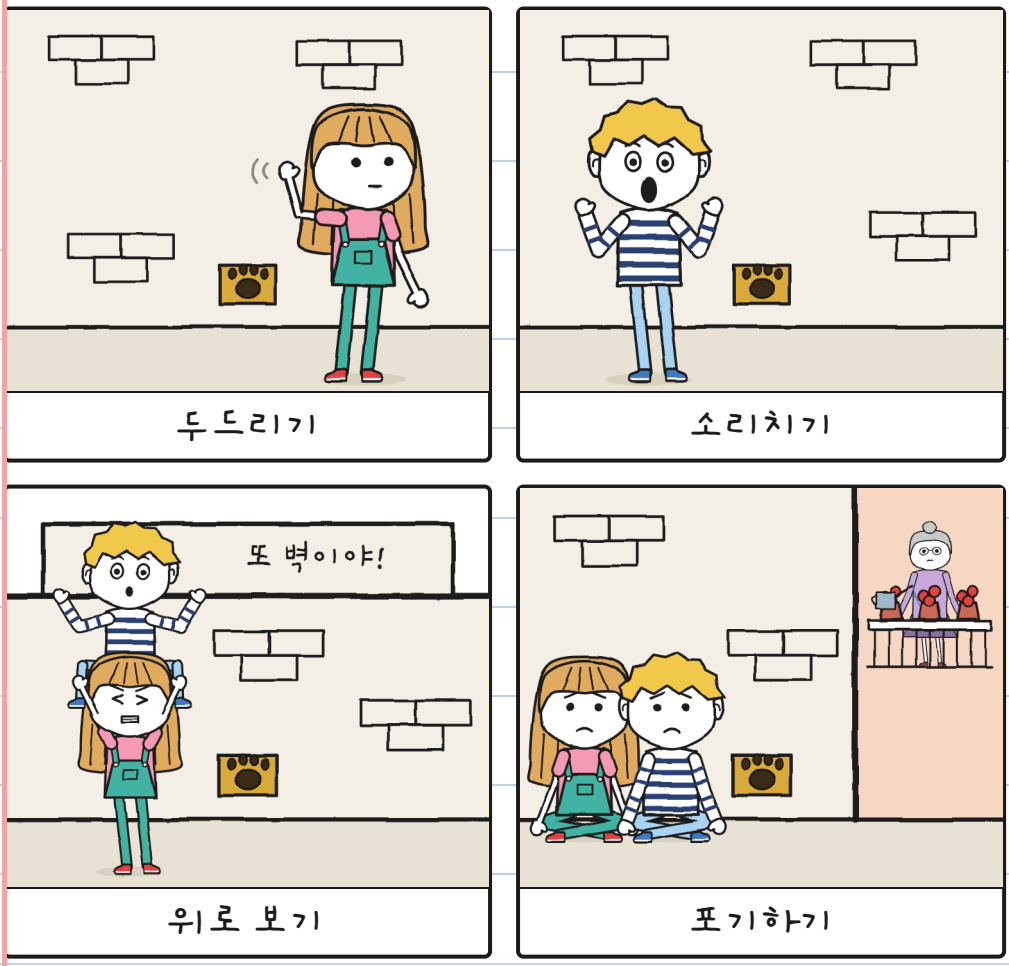


판

"우편함인가?" 내가 말했다.

하지만 택배는 안 들어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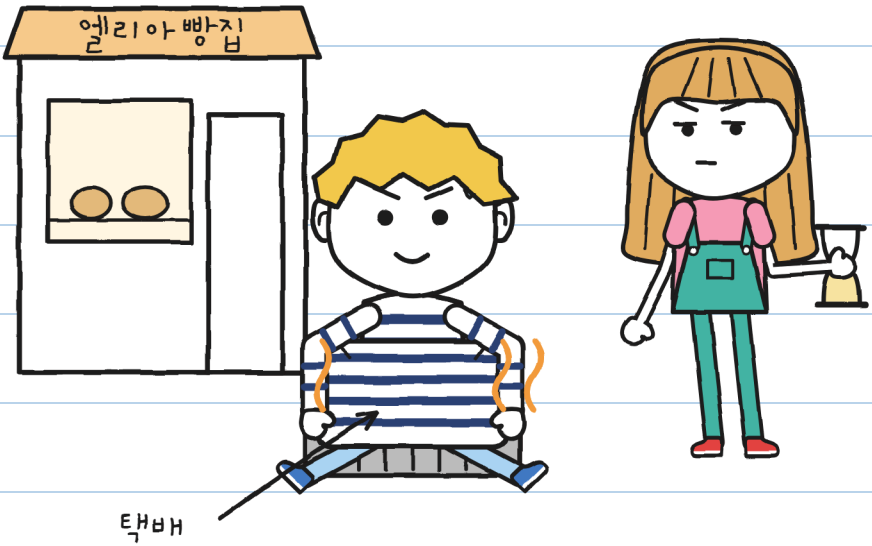
우리는 벽에다 온갖 걸 해봤다:



한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.

"그 택배는 몇 년째 온단다."

날씨가 추웠다. 훌리타가
읽었다. "따뜻하게 보관."
나는 새로 왔다. 따뜻하게 보관한다.
택배를 스웨터 안에 넣었다.
빵집 환기구에 앉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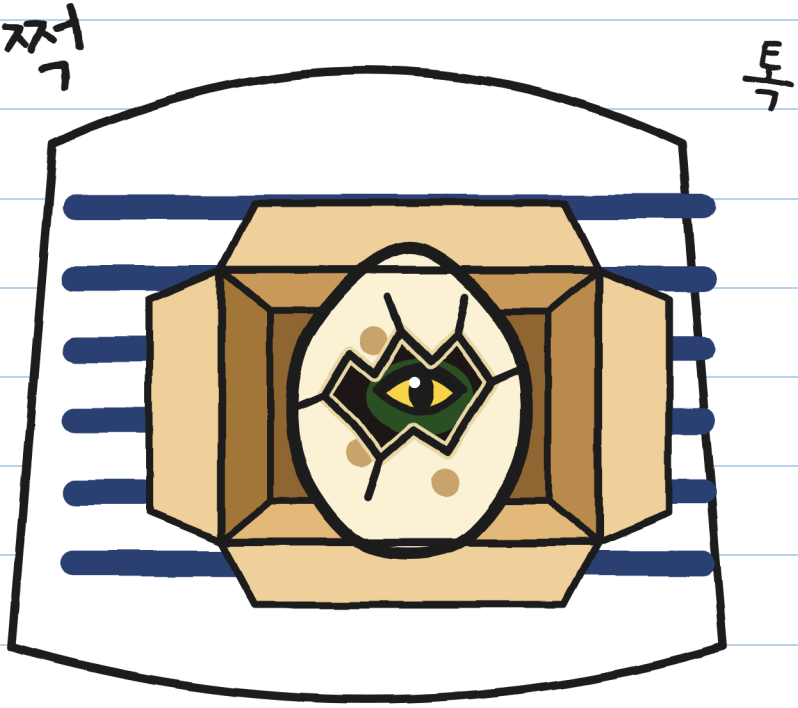
너 꼭 배 나온 우체통 같아.

빵 냄새가 났다. 나는 땀이 났다.

그때... 톡! 무언가가 내 배를 쳤다.

"네 배야?" 훌리타가 물었다.

"내 배는 '톡' 소리 안 내."



그리고 택배가 나를 쳐다보았다.

한 이야기, 여섯 가지 사이즈

여섯 가지 사이즈, 20개 넘는 언어.

사이즈 XXS · PRE-A1
에취, 아기 용이 작은 불꽃을 뿜어!

사이즈 XS · A1
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.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.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.

사이즈 S · A2
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.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재채기로 내뿜었다. 불꽃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. 그러자 아기 용이 그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.

사이즈 M · B1
나는 평범한 재채기를 했지만,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태웠다. 그러고는 탄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.

사이즈 L · B2
나는 평범하게 재채기를 했다. 그에 비해 아기 용은 작은 불꽃을 내뿜어 라벨 모서리를 그을렸고, 그러고는 태연하게 그 그을린 모서리를 먹어 버렸다.

사이즈 XL · B2-C1
삽화 소설 · 13+
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.

이야기는 같아. —J.



linguaula.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